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2차 회의

일시: 2009년 2월 16일 오전 10시30분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위원장)



광주일보만의
지향점 있어야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2차 회의가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 광주 시 동구 금남로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꼼꼼히 분석·비판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문상필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



독자위 내용
피드백 됐으면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희망 캠페인 벌여
위기극복 앞장서길

사회갈등 지적만 말고 대안 제시를

▲조현중(위원장·국립광주박물관장)=2009년도 첫 독자위원회 회의다. 사회의 공기로써 광주일보가 제시한 새해 희망 메시지와 2개월간 발행된 지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자.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면을 살며시 줄인 것은 문제다. 지역 대표신문으로서 위상을 포기한 것 아닌가 의구심마저 들었다. 경제가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이 필요한 때다. 희망과 신의를 담아,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희망의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그런 면에서 2월14일자 1면 '목포 행남자리의 아름다운 노사동행' 기사는 시의 적절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기사였다.

▲이묘숙(도슨트협회 회장·주부)=지난해 12월24일자 20면 '승일고 수능 마친 고3 해외봉사'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육 현실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보도 관련, 전시기간에는 모든 언론이 밤비처럼 들끓고 그만인데 광주일보는 '우리들의 비엔날레는 끝나지 않았네', '미술학도의 끼 보여줄게요', '대인시장 아트페어'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속성을 띤 현재진행형임을 인식한 결과물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한다.

또 문화 기사에서 내용이 너무 좋아 그곳을 찾아가보고 싶은데 장소나 문외지 등 관련 정보가 없어 아쉬웠다. 독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한다.

▲류동훈(광주·전남행복발전소 사무처장)=지역 언론이 어렵다. 이 어려움을 독자와 함께 넘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지역

경제, 지역사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문화수도 사업이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시민들 스스로 문화수도 건설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도청 별관 문제에 몰려 있는 관심을 이런 활동들로 돌려 문화수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조현중=문화수도 건설은 언론만의 사명만 아니다. 하지만 언론이 추켜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핵심사안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활동도 가치 있다. 시민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현석(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지난해 11월22일자 3면 '국제중 합격 비결' 기사는 주인공과 환경이 다른 대부분의 가정에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예를 들어 '엄마야빠와 매년 다녔던 해외여행'이 일반 가정에서 가능한가. 물론 자녀교육에서 동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하면 톱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반면 지난 2월14일자 3면 '광주 송하초 송하카오스' 기사는 대조를 이뤘다. 결혼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아이들이 전국 과학탐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기사였다. 또 2월6일자 '불우 형제 대부분 등장남' 기사도 흐뭇했다.

▲문상필(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이사장)=독자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피드백돼야 한다. '어떻게 반영됐는지, 아니면 사실은 이렇다' 등 광주일보와 독자위원들이 공유 해야한다. 독자위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광주일보의 책임있는 담당자가 참여했으면 한다.

▲문기전(광주YMCA 금남로회관장)=지면이 줄어들 것인 것의 '질'로 범충해라. 인문·사회학에 관심

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인물이 많다. 깊이 있는 분들의 깊이 있는 글들을 자주 접했으면 좋겠다.

▲임선숙(대한변호사협회 이사·변호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들이 많이 표현되는데 문제는 그 갈등의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청별관 철거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광주일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이 지적만 한다면 해결을 내딛는 것이 아닌 제자리걸음만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갈등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갈등은 해법이 있어야 해소된다. 언론이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지역신문엔 여성면이 없다. 가정·여성 문제에 관심 가져줬으면 한다. 아이 교육에 있어 우리 지역만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묘숙=1월15일자 '광주 문진위 예산 나눠먹기'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시원했다. 그동안 문진위는 특정 단체의 공격을 받기 싫어 예산을 나눠먹은게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기사와 연계해서 '문화로 사람을 나눈다' 시리즈는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조현중=광주일보도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 컬러를 가져달라는 것이다. 비판도 받았지만 그래야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신문에서의 특종이란 먼지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건을 일관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류동훈=지역신문을 많이 봐야 지역경제가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 광주일보 마니아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광주일보와 운영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묘숙 (도슨트협회 회장·주부)



광주비엔날레
지속 관심 돋보여

류동훈 (광·전 행복발전소 사무처장)



지역신문 많이 봐야
삶의 질 높아져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학과 교수)

국제중 합격 기사



상대적 박탈감만

문기전 (광주YMCA 금남로회관장)

훌륭한 인물 소개



인문학에 관심은

임선숙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변호사)

가정·여성 문제



꾸준히 보도해야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062) 227-9940
총장점: 금남로점 (062) 227-9970

광주원점은행

신용비교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용비교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5.5%

광주원점은행

공무원의 꿈 이루세요!

2008년 전남지방직 수석합격

이벤트 1, 2, 3, 4

개강: 3월 2일 (어른반/부모반)

동부고시학원